

건강행태·의료의 질			번호: IV - F - 2					
제 목	국문	흡연에 대한 지식수준과 흡연행태와의 관련성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smoking related knowledge and behavior						
저 자 및 소 속	국문	우은경 ¹⁾ , 오희철 ²⁾ , 이상욱 ³⁾ , 이지전 ⁴⁾ 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건강보험연구센터						
	영문	Woo EunKyung ¹⁾ , Ohrr Heechoul ²⁾ , Yi Sang-Wook ³⁾ , Yi JeeJeon ⁴⁾ 1)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3)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wandong University 4) Health Insurance Research Center						
분 야	보건관리 건강행태	발 표 자	우은경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0월							
1. 연구 목적								
<p>흡연은 폐암, 구강암, 췌장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하고 그 외에도 뇌혈관질환, 소화성궤양 등을 유발하며 임산부의 흡연은 불임이나 미숙아, 자궁외 임신 등을 유발한다(WHO, 2000). 우리나라의 성인의 흡연율은 60%가 넘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OECD, 2001) 최근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와 금연교육을 통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p> <p>바람직한 건강행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건강행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흡연지식과 정보의 부족이 흡연률을 높인다는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금연교육을 통하여 흡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흡연의 부정적인 인식을 높여 흡연예방과 금연을 시도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에 대한 지식수준과 흡연행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특정집단이나 특정연령을 대상으로 본 연구들이다. 본 연구는 전 국민의 표본을 대상으로 흡연지식수준이 흡연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p>								
2. 연구의 방법								
<p>우리나라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군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60세 이하의 인구 중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훈련된 면접원들이 표본지점의 조사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하였다.</p> <p>연령, 성별, 교육상태, 소득수준, 종교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행태, BMI 등 건강관련변수를 조사하였다. 흡연에 대한 지식수준은 10개 문항을 개발하여 측정하였다. 각 항목별 흡연지식수준 점수는 1~6점이며 전체 흡연지식수준 점수분포는 10점~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p>								

수준이 높다. 흡연행태는 흡연여부(흡연자, 비흡연자), 하루 흡연량(과흡연자 1갑, 저흡연자 < 1갑), 금연시도 여부를 조사하여 이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AS window 버전을 조사하여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699명, 여자가 301명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흡연행태를 살펴보면 흡연자는 442명(44.2%), 비흡연자는 558명(55.8%)이고 연령별 흡연률은 20-29세군이 53.7%로 가장 높았다. 비흡연자 중 과거 흡연자는 119명(11.9%)이었고 나머지는 흡연을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은 320명(32.0%)이고 흡연자중 과흡연자는 370명(37.0%), 저흡연자는 72명(7.2%)으로 분포한다.

4. 고찰

이 연구는 전국민의 표본을 대상으로 흡연지식수준과 흡연행태의 관련성을 본 연구이다.